

서효인의 '소설처럼'



여기 산 자들이 있다 - 장강명 연작소설 '산 자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다. 토요일 오후 겁도 없이 서울역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하필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노조 집회가 있었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고, 집회가 벌어지는 현장도 아니었음에도 가는 길에 차가 막 막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중간에 내려 전철을 타야 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택시 기사님은 땀이 보이는 집회 행렬에 대고 무한정한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 다 먹고살 만하니 나와서 저런다는 식이었는데,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길에 나온 사람 때문에 먹고사는 일에 지장을 받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이러니하여 몇 번을 속으로 곱씹었다. 먹고사는 일의 고단함에 대하여.

군가가 그날 기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광장의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라는 점이다. 택시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론은 '타다'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 것 같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결국 광장에 나선 택시 기사님들도 또 다른 경쟁 상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팽창에 예외란 없는 법이니가.

이런 남들의 사정에 우리는 큰 관심이 없다. 택시든 우체국이든 학교 급식실이든 자동차 공장이든 내 삶의 불편을 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나 아닌 타자의 먹고사는 문제에 끼여들 틈을 우리의 팍팍한 삶은 허락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산 자들'은 그런 존재다. 기어코 열심히 내 삶을 꾸려나가는 존재, 그러나 남의 삶에 딱힌 어려움에는 애써 고개 돌리는 사람. 장강명 연작소설 '산 자들'은 철저하게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지극히 리얼리티를 살린 장강명 특유의 서사에 몇 번이고 숨이 턱턱 막히지만, 소설이 주는 진정한 아득함은 다른 데에 있다. 산 자들은 결국 모두 죽

으리라는 것. 그 객관적인 묘사와 냉철한 통찰.

'산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다른 의미가 있었다. 불의에 저항하다 동료 죽어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무질 때, 결단코 그 깃발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을 우리는 산 자라 불렀다. 앞산 산 자가 뒤에 서 있는 산 자더러 나를 따르라고 말하던 시기가 있었다. 더디가더러도 우리에게도 대이라는 게 있었다. 누구는 연대라고 부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조직이라 불렀던 그 무언가가, 같이 살자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다. 오월의 광주와 6월의 광장을 지나, IMF를 거쳐 촛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산 자들이란 그 전의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누구일까? 그들은 장강명의 소설에서 가쁜 숨으로 산다.

정리 하고 과정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던 현장 노동자, 대기 발령을 받고 회사의 휴직 취급을 받는 사무직 노동자, 여러 번 겪어 왔던 듯이 본인의 몫을 찾는 알바생과 그를 잘라야 하는 직원, 200m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깎아먹는 경쟁을

펼쳐야 하는 뺑뺑 자영업자들, 아나운서 시험을 보기 위해 폼메이크업을 한 채로 서울에서 창원까지 향하는 지망생들... 지금 시대에는 그들이 산 자들이라고 장강명의 소설은 말한다. 이 시대에 그들더러 따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산 자들은 각자도생한다. 그래야 죽은 자가 되지 않는다. 죽은 자들은 대부분 길이 아닌 길을 대오라고 착각하고 따른 자들이었다.

이토록 잦았던 소설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장강명의 '산 자들'을 읽으면 적어도 쉽게 말할 수는 없다. 파업이 불변하다고, 취업 준비생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영업자가 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 태도와 복잡하게 생각해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먼저일 것이다. 택시 기사가 우편 노동자를, 출판 편집자가 반도체 노동자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대학 비정규직 강사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쉽게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산 자들이기 때문이다. <시인>

의료칼럼

환자와 의사의 신뢰



기홍석
기홍석 안과 원장

볼 수 있는 데스메막 파열 증후 등 통상적인 증상과는 많이 다른 여러 증후 때문에 녹내장 학회에서 증례 토의 주제로 올 리기도 하고 여러 문헌을 찾아보는 등 그녀의 녹내장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다행히 안압이 잘 조절되었고 건강한 젊은이였던 그녀는 더 이상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시력과 시야가 잘 유지되었다.

15년이 흐른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내 환자이다. 그동안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다니다가, 본인의 녹내장이 계기가 되었는지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대학에 진학하여 간호사가 되었다. 같은 의료인이 된 그녀는 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치료에 열심이었고 결과도 좋았다. 의사와 환자 관계가지만 때론 병의 경과와 치료 내용을 공유하면서 상의하기도 했다.

그녀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첫째 아이 임신 때였다. 임신 시엔 녹내장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녹내장 치료 약제들은 태아에 대한 안전성

이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신 시에는 녹내장 약을 투여하지 않아도 안압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녀는 임신 초기부터 안압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녹내장 약물을 투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안압이 높아졌다. 임신 기간 중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기형아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기간을 최대한 피하고, 치료와 중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약제를 투약하며 안압을 조절해 갔다. 다행히도 녹내장의 큰 악화 없이 분만을 하였고,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그녀가 둘째를 가지겠다고 했다. 첫째 아이 임신 때 고생했던 기억에 슬슬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또 그녀는 첫째의 병치레가 잦은 이유가 녹내장 치료 때문에 모유 수유를 못한 자신의 탓이라 자책을 하면서 둘째는 꼭 모유 수유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보였다. 숙제를 하나 더 떠어난 셈이었다. 그렇지만 첫째 아이 치료 때의 경험으로 임신 기간 동안

약제와 레이저를 미리 계획하고, 적절히 가감하면서 녹내장 치료를 그려져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무사히 둘째를 분만하고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면서 모유 수유 중이다. 물론 안압은 다소 높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던 중, 오늘 진료실로 그녀가 감사의 손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한 것만으로도 고맙고 가슴 뿌듯한 일인데 이런 감사를 받고 보니 오늘날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의사가 되어 있었다.

"아! 이런 보람에 의사 노릇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가 간호사로서 치료에 대한 위험과 이득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허심탄회하게 치료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상의를 할 수 있어 내 나를 소신껏 치료할 수 있었다. 치료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의 유대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와 아이의 건강을 간절히 빌어 본다.

기고

50대를 사는 방법에 대하여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협) 대표·문학박사

는 안 된다. 즉 50을 선이라고 하는 언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50의 몸이 하루하루를 산(경험한) 결과가 언어로 표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도 살아 본 후에 서술되어야 순서가 맞다. 행위체인 개인은 결코 '선'이라는 다발로 묶여 일반화될 수 없다.

기실, 30이니, 40이니 하는 '나이'라는 게 무언가? 숫자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는 매우 직선적인 개념이다. 게다가 중력의 영향으로 체형에 변화가 생기는 건 거칠게 말해 개개인의 인격과는 무관하다. 주름살만큼 인생의 경험 이 많으므로(?) 이에 비례해 현명함도 더해진다는 가설은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지는가? 결코, 단호히 인정할 수 없다. 청년들이여 이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어른이라 믿었다가 끈대리며 실망하지 않으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선' 세대라는 통계를 덩어리 질 수 있는 단순 명료한 종(種)인가? 또 그렇게 다발로 묶여 칼럼 한 편을 써서 어떠한 차원의 지(知)를 생성해 내고자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 개개인의 감성과 경험치, 그리고 각자가 처해있는 무수히 다른 환경이 있지 않은가? 시작 표현을 빌자

면, '하늘의 별만큼'... 이러한 개인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필자는 "선내 나는 50대가 아니라 신선하고, 잘 익은 50대가 될 수 있을까? 난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우쭐해 하며, "주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든지, 취미를 가지라"고 부추긴다. 이런 무책임. 이견 아니잖아!

50을 살고 있는 나의 경우를 보자면 이렇다. 유독 나이에 집착하는 에이지즘의 끝판왕 대한민국. 그러나 나에게 나이란 참으로, 참으로 숫자에 불과하다. 향학열에 불타 35세에 타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10여 년을 버티며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현재의 인문학자가 되었다. 지금의 나는 매 순간 감동받으며 자유롭게 삶을 구가하고 있다. 흔한 말로 제2의 인생 황금기다. 또 사생활은 어떤가. 50이 넘어 새로운 사랑도 했다. 연상 연하 커플로 '너 아니면 안 돼!'라는 에너지 소모인 로맨틱 러브를 잘도 해냈다. 어느 쪽이든 동기 부여가 주어지면 또 실행할 것이다.

인생은 becoming이다.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40을 '영포터'라 하지만, 위기의 세대로 '아라포' (Around Forty, 비혼·고용 불안·부모 부양' 등의

외양을 갖는다)라는 신조어도 엄연히 존재한다. 적어도 결론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글을 전개시키지는 말자. 이쯤에서 문득 생각이 나는 화가가 있다. '사과'로 유명한 폴 세잔이다. 그는 일생의 30여 년을 사과 그리기에 바쳤다. '사과', '그림이 있는 아침', '사과와 오렌지' 등등.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그린 사과는 모두 다르다. 먹음직스런 사과가 아니라 이야기를 건네는 사과다. 메를로 폰티는 그의 그림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나의 정물화를 완성하기 위해 100회를 작업했고, 초상화를 그릴 때는 모델을 백신 번이나 자리에 앉혔다."고.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 매년 다르게 그려진 사과처럼, 우리 역시 모두 다르다. 나이로 묶어서도 특수성을 일반화해 구성주의로 흘러서도 안 될 것이다. 그냥 겸허하게 우리는 세상에 범람하는 선입견을 버리는 것을 하면 된다. 인문학을 통해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 다음, "Let It Be!"다. 마흔이든 선이든, '그'는 그림 뿐이다. 50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을 충추듯 사는 것이다.

社說

'지구촌 수영 축제' 성공 시민 참여에 달렸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일 선수촌 개촌 이후 세계 각국 선수단이 광주에 속속 도착해 종목별 경기장에서 실전 훈련에 돌입하면서 대회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국제수영연맹(FINA) 회원국 209개국 가운데 194개국에서 7507명이 참가 등록을 했다. 이 가운데 선수는 2639명, 임원은 155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수영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열리는 만큼 흥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예상과 달리 개막 전부터 대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최지 결정 이후 6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덕분이다. 이번 대회의 예산은 2244억 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5.2%,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1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조직위는 모두 어쩔 수 없이, 산 자들이기 때문이다. <시인>

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르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번 대회는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성공 개최 여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에 달려 있다.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1만200여 명의 시민 서포터즈가 그 첨병이다.

대회 기간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나누고 연대, 대동의 광주 공동체 정신과 남도 특유의 후덕한 인심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대회 기간 중 차량 2부제 자율 시행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 주차나 음주 운전, 불법 현수막 없는 '3무 광주' 실천에도 앞장서 품격 있는 시민 의식을 보여주자. 또한 시민 모두가 남도의 맛과 멋, 호남 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대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회에 이어 또 하나의 성공 신호를 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중 이용 시설 안전 관리 부실 여전하다니

다중 이용 시설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소화기와 적재물이 쌓인 방화 구역 등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중 이용 시설이 전남에서만 937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는 생활 속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다.

전남소방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전남 도내 다중 이용 시설 총 1만 5614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에 달하는 9378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소화 기구 불량 4833곳, 유도등 불량 4122곳,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불량 3953곳 등 소방 분야가 42%로 가장 많았다.

건축 분야에선 무단 증축이나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 건축물(2189곳), 방화문 및 방화 구획 불량(1522곳) 등 31%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866곳) 가스 누출 차단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는(579곳) 등 전기, 가스 분야에서도 불량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중 시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전남도가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해수욕장 안전 관리 인력(해경) 상주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연안해역 사고-안전 관리에 주력하기 위해 기존 해수욕장에 상주토록 했던 전문 인력을 철수시켰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질서 의식을 생활화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38년 '액션 코믹스 #1'에 처음 등장한 슈퍼맨의 상징은 파란색 타이즈다. 행성 크립톤에서 지구에 보내질 당시 어린 칼 엘이 덮고 있던 담요를 재료로 그를 키운 지구인 어머니가 뜨개질로 만들어줬다고 한다. 다이아마이트의 폭발력도 견디는 이 타이즈를 아무 이유 없이 파란색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 번역-출간된 미셸 파스투로의 '파랑의 역사'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13세기부터 썩 괜찮은 청색 염료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18세기 초에 이르러 그 인기가 붉은 색을 앞

블루 이코노미

지판이 파란색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파란색을 경제에 사용한 이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김위환·르네 모블르뉴 교수다. 이들은 2005년 '블루 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43개 언어로 350만 부 이상 팔려나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블루 오션이라는 말은 누구나 아는 비즈니스 용어가 됐다.

블루 이코노미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벨기에 환경운동가 군터 파울리다. 그는 '자연 모방'이 푸른 지구를 위한 마지막 블루 오션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가 민선 7기 새

로온 천년의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선택했다. 군터 파울리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 자원 등 블루 자원이 풍부한 전남의 장점을 살려 에너지, 관광, 바이오, 의료 등 신성장 산업을 일궈 내겠다는 전략이다. 소극적인 의미의 녹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듯하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해 전남도와의 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